

지역 소식통

정읍시, 반려동물 복지 위해 영업장 실태 점검

정읍시가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강화 △동물학대 처벌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무분별한 영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 판매, 수입, 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무허가 영입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정읍시에는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5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있는데,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한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이 없어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세계잼버리 대비 음식점 위생 집중점검

부안군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대비하여 17일부터 음식점 위생 집중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분식, 치킨, 육류 등 외국인 선호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위생모·마스크 착용여부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및 친절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번역앱 활용법을 안내하는 등 많은 외국인 방문객에 대비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기간 동안 부안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호우피해 최소화 총력

심덕섭 군수, 피해발생지역 신속한 응급조치등 2차 피해방지 대책주문

고창군에 닥세째 최고 315mm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심덕섭 고창군수가 국과관소장들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 지속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누적강수량 13~17일, 오전 7시 기준)은 평균강수량 289.7mm, 대산면이 315mm, 최소 선운산등이 257mm를 기록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7일 오전 8시 국과관소장등으로부터 해당읍면에 대한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을 보고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7일 오전 8시 국과관소장등으로부터 해당읍면에 대한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을 보고받았다.

대비해 물막이판 설치, 민간에찰단과 자율방재단 그리고 행정이 합동으로 산사태 위험 단독가구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하천변과 등산로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등 2차 피해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지속되는 호우에 계속적인 선제 조치를 해 달라"며 "민·관·군 모두가 함께 호우피해 복구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세세한 부분까지도 피해가 빠짐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속되는 호우에 기상 상황을 예

의주시해 주시고 특히 비탈면 낙석 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과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심덕섭 군수는 이날 아산면 학전마을과 흥덕면 석우마을 일원의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응급조치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제809부대 2대대 정현민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사전 복구대책회의를 갖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무장면 죽림마을의 한 독거노인의 피해주태를 찾아 유실된 경사지 복구를 위해 지역 민·관·군과 함께 힘을 보탤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히"

"특히 사고 위험이 큰 곳은 사전 정비 등 철저한 대비로 사고 예방에 만전 기해달라"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이 17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산지나 하천 등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시민들이 가지 않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고 위험이 큰 곳은 사전에 정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부진 사유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민선8기 2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약사업을 수시로 점검해 공약이 문제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어"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와 정부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정 핵심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시장은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읍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가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념사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부안군 실버복지관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부안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찬병)는 지난 14일 부안실버복지관을 2023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안군에는 학교, 자원봉사센터, 경찰서를 비롯해 올해 지정된 부안실버복지관 등 총 8개의 치매극복 선도단체가 있다.

지난 2월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 것을 계기로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되었으며, 부안군 치매안심센터와 부안실버복지관은 향후 다양한 치매극복 사업을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관내 중년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질환 무료진료와 건강강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립선 건강강좌 · 무료진료

고창군, 전문기관 도움 받아 55세 이상 주민 500여명 대상

전북 고창군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관내 중년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질환 무료진료와 건강강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배움터로 고동받는 55세 이상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질환 진료 및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건강 강좌도 열었다.

행사는 한국전립선학회와 주관하고, 전북대학교병원 비뇨기과가 주관했다. 또 지역 의료진 70명과 고창군청 보건소 전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검진과 진료에는 우리나라 전립선 분야 권위자인 한국전립선비뇨관리학회 김세철 회장(전 중앙대 의부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해 권성원 삼일고문(차의과대학 석좌교수), 유재형 전북대학교 비뇨학과 교수 등 국내 최

고의 비뇨기과 전문 교수 등 많은 의료진이 참여했다.

혈액측정,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요속검사 등 전립선 질환에 대한 진단과 상담, 전립선 질환에 대한 강좌로 진행됐다.

검진을 받은 고창읍 주민은 "생애 처음으로 초음파 진단도 받고 전문 의사 선생님의 성의 있는 진료를 받게 되어 더 없이 기쁘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처방해주신 약도 잘 챙겨 먹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립선 무료검진 및 건강강좌를 통해 전립선 질환의 조기 발견·진단으로 국민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건강관리를 잘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R&D 지원사업 심의' 과학기술진흥위 개최

정읍시는 지난 13일,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지원사업 심의를 위한 제1차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정읍시장)는 정읍시의 과학기술진흥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지역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시의회 의원, 과학기술 관련 교수, 과학기술 선도 기업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정읍시가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 경연에 기여가 가능한 연구기획 및 R&D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기



관 융복합 R&D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학수 위원장은 모무발언에서 이번 사업이 연구기관과의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현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육성·유치로 이어져 지역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제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면밀한 심사를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